

1-TOM, 10-SON

한국의 가장 유명한 박물관과 역사

테르미즈 주립대학교 국립복장예술학부

문화예술기관의 조직과

경영 학생

마흐무도바(Makhmudova)는 아지자 아자마트(Aziza Azamat)의 딸입니다.

개요: 이 기사는 한국의 유명한 박물관과 그 유래의 역사, 수천 년의 정보, 그리고 오늘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핵심어: 대한민국, 박물관, 서울, 역사, 국립, 부산, 인사, 경복궁, 덕수궁, 전시, 용산공원.

한국은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이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국가입니다. 잘 알려진 국립공원과 테마공원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500개 이상의 갤러리와 전시회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호기심이 많은 모든 행성의 요구를 충족하는 박물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역사박물관.

이 멋진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쉬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을 꼭 방문해보세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박물관 - 면적은 30.5헥타르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역사박물관은 폐, 청주, 경주, 김해 등지에 분관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경기도 고궁에도 운영된다. 박람회의 주요 부분은 조선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국립 박물관 외에도 민족지학적 마을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한국 마을과 정착촌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조상들의 생활 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용인 민족마을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모든 복잡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박물관

이런 선진국에는 과학과 혁신기술을 전담하는 관광시설이 있을 수 없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디지털 및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삼성이 설립된 곳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서울과 한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박물관 중 하나 인 Lium입니다. 이는 전자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향후 몇 년,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전시 센터의 세 개의 홀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탐험가의 시대;



1-TOM, 10-SON

☐ 산업 혁신;

☐ 과학적 변화.

자연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강원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보세요. 전망대와 천문관, 생태 센터에서는 곤충과 생태 공원의 다른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천체를 볼 수 있으며, 우주 공간에서는 우주선과 공룡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에 있다. 이곳에는 바다와 그 발견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전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해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전시물과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서울과 한국의 주요 과학 박물관 외에도 다음을 방문해야 합니다.

☐ 서귀포항공우주박물관;

☐ 제주 넥슨컴퓨터박물관;

☐ 대전 파크 엑스포;

☐ 서귀포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명박물관;

☐ 여수해양수산물박물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는 다양한 과학 및 산업 분야에 전념하는 거의 모든 전시 센터 또는 공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술관과 갤러리

회화, 조각, 현대 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 작품이 전국 30개 이상의 전시 센터에 헌정되어 있습니다. 전통 도자기부터 미래 지향적인 인물과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타일과 크기의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미술관 중 하나는 과촌 국립현대미술관입니다. 특히 한국 현대 작가(귀희동, 구본운, 박수근, 김창기)의 작품이 7000여 점이나 있다.

서울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교를 나누는 동시에 젊은 예술가, 조각가, 건축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넓은 안뜰입니다.

미술관 중에서는 한국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 서울 인사아트센터;

☐ 백남준 아트센터에 불이 붙었다;

☐ 대구 대박플라자;

☐ 부산갤러리;

☐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

☐ 서귀포 본태박물관.



1-TOM, 10-SON

국립중앙박물관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건물로 면적 137,200m², 높이 43m로 서울의 주요 명소 중 하나로 세계 20대 박물관에 포함되어 있다. 총 약 220,000여 점의 전시물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그 중 13,000점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특별전에서도 가끔 전시되지만 나머지 시간은 전문가들에게만 주어진다. 정기전시와 기획전시 외에도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 건물로 이전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지금까지 연구소를 방문한 사람은 2천만 명을 넘었다.

서울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

이 모든 것은 1909년 대한제국 황제 수종이 신하들을 위해 창경궁 단지를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일본 점령 기간 동안 존재했던 일본 박물관 컬렉션이 합류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전쟁 중에 보존되어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1945년에 서울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독립을 했고, 이러한 컬렉션을 소장하는 국립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올해는 박물관이 설립된 날이다.

처음에는 경복궁과 덕수궁 지역이 박물관 부지로 할당됐으나 이후 여러 차례 옮겨졌다. 최종 장소는 용산공원의 신축 건물이었다. 현대식 건물은 모든 자연 재해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내진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지진에 안정적입니다. 최대 6포인트의 지진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외관은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현대에 걸맞는 현대적 건축물이다. 이 박물관은 2005년에 다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사용된 문헌 목록:

1. 한국 박물관의 역사
2. 서울의 역사박물관
3. 한국 문화
4.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
5. 오디오북
- 6.archiv.uz

